



I am

who I am

미리 알려두지만,  
이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인터뷰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풀내면서 앤 드월미스터가  
그렇게 말했으니  
아마 그럴 것이다. "세상엔 이렇게  
쉬운 인터뷰도 있군요."  
눈가와 입가, 이마에  
이르기까지 약 서른 개의  
주름을 만들면서 그녀가 웃었다.  
"내가 누군지 궁금했나요?  
난 그냥 나예요."

photos by  
KANG MOON SEOK

엣그제 당신의 남성복 컬렉션을 봤다. 좋더라. "이건 여자 옷보다 더 아름답잖아" 소름 보는 내내 감탄했다. 좋았더니 나도 기쁘다. 소름 준비하기 전에 남편과 상하이에 갔다. 아주 짧은 일정으로, 남편이 중고 레코드 가게에서 빨간색 레코드 하나를 샀는데 그게 이번 쇼의 모티프가 되었다. 재킷이 에베서 샀는데 다다이즘에 관한 앨범이었다. 그 뒤, 다다이즘에 대해 알고 싶어 마르셀 뒤샹의 인터뷰를 봤다. 1959년에 한 인터뷰였는데, 그해는 내가 태어난 해이기도 하다. 그 인터뷰에서 뒤샹이 한 "다다는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정신이며, 이제껏 항상 존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늘 존재할 것이다"라는 말이 내게 영감을 주었다. 내가 평상시에 해온 생각을 정확히 짚어낸 말이었다.

여행을 자주 하나?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가끔적이면 앤트워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다. 여행은 집중을 방해하고 때로 혼란을 가져온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행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영감을 얻는다. 여행을 아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나는 매일매일 내 머릿속을 여행하니까(웃음). 컬렉션을 준비하는 당신의 아틀리에에는 어떤 모습인가? 당신의 아틀리에에는 소름 앞둔 그 정신없는 시간에도 웬지 고즈넉할 것 같다. 컬렉션을 준비할 때 세 명의 어시스턴트와 함께 일한다. 물론 남편 패트릭도 늘 함께다. 그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원하며,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누구보다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어서 그다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정신적 교감이 이루어진다. 아틀리에 중간에 커다란 하얀색 테이블이 놓여 있는데 주로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일을 한다. 대개 차분한 분위기지만 패트릭들은 어지럽혀져 물건을 찾을 수 없거나 옆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시끄러울 때도 있다. 개인적으로 시끄러운 분위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런 패닉 같은 분위기에서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일거리를 집으로 가지고 가서 혼자 일하기도 한다.

아주 어렸을 때도 당신은 무척 조용하고 예민한 소녀였을 것 같다. 당신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나?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았다(웃음). 나는 조용한 걸 좋아할 뿐이지 예민하지는 않다(웃음). 어릴 때의 나...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내 기억엔 강인한 소녀였던 것 같다. 모든 것에 적극적이었고,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 일이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소녀였다. 아티스틱한 영감을 자주 받았고, 스스로 자질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명확하게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던 것 같다.

당신이 한 남자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함께했다는 것이나 스무 살에 가까운 아들을 두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당신은 어떤 엄마인가? 정말 평범한 엄마다. 나와 아들 사이에는 지극히 평범한 대화가 오간다. 밥 먹었니, 차 조심해라, 같은 이야기들. 아들은 패션에 관심이 없다. 맛있는 것을 찾아 다니고, 신나는 것을 구경하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아이라 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시간도 없고, 가끔 이런 말을 한다. "엄마, 이 스웨터 마음에 드는데 가져도 돼?"(웃음)

아들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것들이 있나? 사실 난 잔소리 대장이다(웃음). 당신이 어렸을 때를 생각해봐라. 엄마들은 다 똑같다. 가장 자주 하는 충고는 이거다.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의 행복이다.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르면 된다."

PHOTOGRAPHY: WILLY VANDEPERE

쉽고도 어려운 종교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머릿속이 반짝, 하고 멋진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순간 모든 디자이너들이 다 그렇겠지만, 그럴 때가 가장 행복하다. (컬렉션에 대한 반응이 좋거나 옷이 날개돋친 듯 팔릴 때가 아니고?) 그건 결과물일 뿐이다. 아이디어가 좋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 일하는 게 즐겁지 않냐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괴롭고 힘들 때가 더 많다. 그렇지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순간에는 그 괴로움을 잊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아름다운 것들을 볼 때, 내가 사랑하는 것들과 함께 있을 때, 조용한 정원에 있을 때 행복을 느낀다.

조용한 정원에 앉아 있는 당신이 아니라, 너무 잘 어울린다. 정원에 앉아서 무얼 하나? 앉아 있지 않는다! 정원에서 나는 항상 걸어다닌다.

음악을 들으니까? 아니, 음악을 들으면 새소리를 들을 수가 없잖아(웃음)!

그럼 집에서는 어떤 음악을 듣나? 개인 브라이어스와 패티 스미스의 앨범, 휴가를 떠날 때도 꼭 챙겨 갈 만큼 그들의 음악을 좋아한다.

책은 어떤가? 즐겨 읽거나 좋아하는 책이 있나?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유희>, 시춘기 시절부터 지금까지 셀 수도 없을 만큼 여러 번 읽었는데 요즘도 읽고 있다. 옆에 두고 매일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읽는다. 어떤 날은 한 페이지, 어떤 날은 한두 문장. 그 책에 실린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내게 영감을 준다.

당신의 옷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건 그 옷을 만든 사람인 당신이 '이야기'를 중시하기 때문일 것 같은데 어떤가? '스토리'는 내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무드를 보다 잘 전달하도록 해준다. 컬렉션을 준비할 때, 내가 가장 먼저 염두에 두는 것은 무드다. 모든 컬렉션이 어떤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앤 드렐미스터다운 무드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옷은 카피할 수 있지만, 무드는 카피할 수 없다. 비주얼은 있지만 똑같이 할 수는 없다.

당신 또한 당신이 만드는 옷처럼 많은 이야기를 가슴속에 품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마흔일곱 살이다. 그 긴 시간을 살면서 보고 겪은 일들이 모두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내 머리는 도서관이나 마천가지다. 작품을 만들 때 그 도서관에서 기억을 꺼내 읽는다.

가끔 시를 쓰거나 이야기를 쓰기도 하나? 어렸을 때 좋아했다. 열대어섯 살 무렵, 내가 누구인지, 나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을 때 내 마음을 시로 표현했던 것 같다. 시는 내 자신을 알아가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시를 쓸 필요가 없어졌다. 옷으로 당신을 표현하면 되니까? 맞다. 나는 옷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나중에, 아주 나중에 할머니가 되어서 더 이상 옷을 만들지 않게 되면 다시 시를 쓰게 될지도 모르겠다.



A

N

N

그렇다면 다른 디자이너들이 하는 이야기도 귀를 기울이는 편인가? 다시 말해 다른 디자이너의 컬렉션을 찾아서 보는 편인가? 안 본다. 일부러라도 안 보고도 노력하는 편이다. 다른 디자이너들이 내놓은 컬렉션은 어떤 식으로든 나의 본질을 흔들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자신의 비전, 나만의 리얼리티에 집중하고 싶다.

당신이 만든 옷을 보면 당신은 여성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강인함, 에지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남성성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섬세함이나 부드러움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맞다. 하지만, 보수적인 남성성과 여성의 이미지 또한 중요하다는 게 내 생각이다. 모든 인간은 섬세하고 여성적이며, 유약한 면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남성적인 강인함 또한 누구나 갖고 있고, 상반된 그 두 요소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순간 매력에 드러난다. 나는 둘을 깨는 걸 좋아한다. 그래야만 전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다이스트들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순용자가 아니다(웃음).

20년이 넘는 동안 계속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쉽지 않은 일일 것 같다. 시간이 흐르면 사람은 변한다. 새로운 것을 접하고 알게 되며, 다른 생각을 갖게 된다. 그렇게 사람이 바뀌니까, 자연히 그 사람이 만드는 옷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늘 똑같은 것을 내놓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운 것이다. 대신,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면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해야 한다.

어떤 일인지 당신을 생각하면 편가를 강렬히 원하거나 욕망하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는다. 세상 사람을

음식물성인 사람과 동물성인 사람으로 나눈다면, 당신은 분명 식물성인 사람일 것 같다. 하하, 정원을 좋아해서? 난 정

원화인 이미지를 거부한다. 내가 말하지 않았나? 난 반체제주의자라고. 난 식물성도 아니지만 동물성도 아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맞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항상 블랙과 화이트를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는 것 또한 그 때문이다. 욕망에 대해 말하자면, 사람이 나 돈에 관한 한 나는 욕심이 없다. 당신의 말대로라면 식물성인 셈이다. 반면 어떤 정신이나 영혼의 만족에 관한 한 내 욕심은 끝이 없다. 내 신체 중 가장 욕심이 많은 부분을 한 군데만 짚는다면 눈일 것이다. 무엇을 입고, 무엇을 가지느냐보다 무엇을 보고, 어떻게 느끼느냐가 내겐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최근에 열렬히 갖고 싶은 것이나 사람이 있었나? 내가 정말 원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모두들 나에게 왔다. 정말이다. 그들이 내가 누군지 알고, 나도 그들을 존경하며, 만남을 열망하면 약속을 정하고 일부러 시간을 잡지 않더라도, 그들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다가오게 된다. 그런 지금까지 사는 동안 삶이 내게 준 교훈이기도 하다. 평강히 철학적으로 들린다. 하하 그런가? 철학이라고 하면 어렵게 들리지만, 정말 그렇다. 나중에 한번 해봐라.

마지막 질문은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그녀의 대답은 이랬다. "잘 모르겠다. 나를 잘 아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 어떨까?"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림 PR 담당자에게 물어볼까, 엔이 없을 때 물어보는 게 좋겠네, PR 담당자는 좋은 말만 할 테니까 어시스턴트나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같은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알고 싶어 할 사람들을 위해 조금 덧붙이자면 그녀는 소평을 하지 않는다. 자신이 만들 수 없는 속옷을 사는 걸 빼면 매 시즌 컬렉션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한두 벌을 자신의 옷장으로 가져가는 게 그녀가 하는 소평의 전부다. 최근에 크게 화를 낸 적은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이슈들, 전쟁이라든가 테러라든가, 환경 오염 같은 문제들 때문에 늘 화가 난다고 했고,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를 세 개만 꼽으라고 했더니 '사랑' '아름다움' '운명' 을 꼽았다. 인생의 최종 목표는 행복해지는 것. 운명을 믿는 편이고(남편을 처음 봤을 때 '저 남자가 내 운명의 남자가 될 거야' 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정말 자기 남자가 되었고, 패티 스미스의 앨범을 처음 보았을 때 '언젠가 이 여자를 만나고 말 거야' 다짐했더니 정말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 내 이야기를 좀 하자면, 한국에 매장이 생기는 9월쯤 당신이 한국에 왔으면 좋겠다, 그때의 서울은 당신의 고향 와그람만큼이나 아름다울 테니 같이 산책하자, 고 말하려다 말았다. 만나기 전보다 만나고 나서 훨씬 더 좋아하게 된 어느 디자이너의 말을 빌리자면 무엇이든 간절하게 바라면 이뤄진다고 한다. 진실으로 좋아하면 언젠가 그 사람이 내게로 온다고 한다. 앤 드렐미스터가 그렇게 말했으니 아마 그럴 것이다. ■ 에디터 | 심정희